

사설

강맥 전수식을 보며

지난 5일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에 서는 장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조계종 교육원장인 무비스님이 9명의 청년 남자들에게 강맥을 전수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앞으로 후학을 내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강의할 자격을 공인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전강(傳講)'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전통을 계승하고 도제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강사의 존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강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한문 불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강원제도가 정착한 것은 조선조 인조에서 숙종 연간이며, 강원 설치의 동기가 선교 견수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인도불교원전에 대한 해독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의 불교학은 인도의 초기불교문헌에

대한 해독능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왜곡된 불교사의 문제점과 현대 한국불교의 맹점은 불타의 근본정신을 되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셋째, 현대적인 연구방법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시적인 차원에서 종합하여 연구하는 훈련이 부족하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출가자들이 어떠한 훈련과 수행을 거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가자는 단 순히 교단의 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을 인도하는 스승의 역할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비만을 위한 비만이 아니다. 희망찬 불교의 내일을 위한 고언이다. 종단과 불교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지가 창간 8주년 특집의 일환으로 지나간 대선 기간 동안 발표되었던 대 불교계 공약(空約)을 점검한 결과, 이에 대한 실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약(空約)으로 끝난 것이다.

선거공약은 대중에 대한 공공연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락을 불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약속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대선주자들 역시 대 불교계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아예 내걸지 말고,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다.

불경에서는 정치인들을 방범(防犯)으로 간주한다. 백성들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재판권과 경찰권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위임했던 권한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권리를 돌려받지 않을 때에는 단합해서 그들을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계약설과 같은 맥락의 논리는 <기세경>, <기세인본경> 등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불교계의 행사에도 이들이 단골손님들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의 지키지도 못할 공약에 현혹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이며, 이 사회의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인간과 생명체들의 공간 확보와 생명을 현양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동화사, 주지인사에 고과제

조계종 첫 사례 포교·가람수호 유공자 말사주지 우선 임용

복지 등 목적사업 사용 특별분담금제 신설

대구 동화사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포교와 가람수호 공로가 있는 스님을 말사주지에 우선 임명하는 주지인사 고과제도를 실시한다. 또 교육, 문화, 복지, 포교기금으로 적당해 목적사업에 쓰이는 특별분담금도 신설한다.

조계종 10교구 동화사주지 지성은 4일 설법전에서 열린 교구 총회에서 '교구 말사주지 인사규정' 및 '목적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발표했다. 교구본사

차원에서 실질적인 말사주지 품신에 관한 인사규정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번에 마련된 교구 말사 인사규정은 전체적으로 조계종 종헌준법에 준해 입안됐다. 이 인사규정에 따르면 가람수호, 종무행정, 신도교육, 포교사업 등 8개의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인사평가표를 마련, 말사주지 재선임에 대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

침이다.

특히 종단의 표창을 받거나 가람수호에 공이 큰 주지에 대해서는 품신특례를 적용, 우선 임용키로 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화사는 이와 함께 각 말사의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용처를 분명히 했다. 1년 예산이 1억 이상 3억 미만의 사찰에 대해서는 결산금액 대비 10%~29%, 3억 이상인 사찰에게는 결산금액의 30%를 특별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교육, 문화, 복지, 포교 등

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못 박았다.

동화사는 당해 임기종료 분기까지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후임주지에게 인계했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당 교구 본말사 주지직 등 각종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도 삼입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bak09@buddhania.com



△조계사대웅전 해체보수 고불식이 6일 봉행됐다.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 고불식

32억 들여 중수... 내년 8월 새모습

조계사주지 지성은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 노태설 문화재청장, 윤창하 종무실장, 정몽준 추미애 박진 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해체보수불사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은 팔리어 삼장 봉헌, 대웅전 해체보수불사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조계사 대웅전(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127호)은 천장과

기둥 등이 남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총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에 들어갔다.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8월 다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주지 지흥 스님은 "대웅전을 보다 여법하고 안전하게 중수하여, 한국의 대표사찰이자 도심 속 열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는 창건 92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

련한다.

조계사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조계사, 시간의 흐름'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19일부터 27일까지 조계사 경내 야외전시장에서 열린다. 이어 20일 오전 11시 풍문여고에서 한마음운동회가 열리고, 24일 오후 2시 불교회관 1층에서 '조계사 인근 전통문화지구 재발견'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된다.

또 26일 오후 7시 경내에서 '맑은 마음, 청정한 마음'을 주제로 음악회, 27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생대회 등의 문화행사가 열린다. 02732-2183-4. 김원우 기자

천태 다도연구보존회 창립

차문화 보급·차학술발표회 등 행사 추진

전국 규모의 다도연구회가 발족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0월 22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천태다도 연구보존회' 창립 법회를 갖고, 제1회 다도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족하는 다도연구보존회는 10여 개 지방의 천태종 사찰에서 활동 중인 1천여 명의 다도 회원이 참여해 앞으로 천태다도

연구소모임 결성, 차 문화 보급, 차 학술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관문사 다도연구회 지도교수 이해자(55 상공관대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씨의 '조선시대 다례 연구' 발표와 함께 각 지방의 다도시인이 이어져 차 문화의 향연을 펼쳐질 예정이다. 023460-5300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태고사상 학술대회 개최

25일 불교방송국 3층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에 대해 태고사상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태고학회(회장 무공)는 25일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태고보우국사 사상연구 제5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을 주제로 한 회장 무공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동국대 이봉춘 교수의 4명이 주제 발표한다. 02904-0081 권형진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천만 불자가 지켜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인쇄인: 김규석 불교소평 '마하' www.buddhania.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권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동북면치 43-3379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대표전화 02-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족정신문화의 중심으로서 전통을 계승하고 희망찬 불교와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신문화와 자원을 인류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사부대중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 정 법 전

원로회의의장 도원 총무원장 정대

호계원장 월서 중앙총회의장 지하

大韓佛敎 曹溪宗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WWW.BUDDHISM.OR.KR